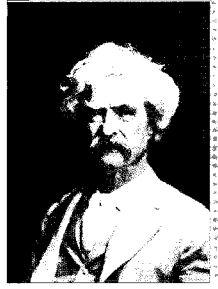


넘치는 재치로 가득한 개구쟁이 소설가

열두 살에 인쇄사서 견습공 생활



현대문학의 아버지이자 현대문학의 개척자, 미국 현대문학의 링컨. 이 수석 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바로 올해 사망 100주기를 맞는 미국의 소설가이자 사회 비평가인 마크 트웨인이다. 1835년 미주리 주 플로리다에서 태어난 트웨인은 1910년 세상을 뜨기까지 미주리 주, 뉴욕 주, 코네티컷 주 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왕자와 거지> 등을 썼다.

마크 트웨인의 탄생

1835년 11월 30일, 미국 미주리 주의 가난한 개척민 집에 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는 바로 훗날 세계 문학사에 한 획을 긋게 되는 마크 트웨인이다. 4살 때 가족을 따라 미시시피 강가 근처로 이사 온 그는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학교를 그만두고 한니발 신문사에서 인쇄 견습공으로 일했다.

이후 22살 때 미시시피 강을 따라 뉴올리언스로 가던 중,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이 된다. 트웨인은 그곳에서 일하며 인디언 전설과 흑인 노예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이때의 경험은 훗날 그가 작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인쇄 견습공 시절의 일화

일화 1>신문사의 편집장이자 소유주였던 아멘트 씨는 통상적으로 견습생에게 주는 보수 즉 급료없이 하숙과 의류를 제공했다. 옷은 일년에 두벌 지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두벌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고 한 벌도 그나마 아멘트씨의 옷이 멀쩡한 한 받지 못했다. 주방의 식탁에서 먹는 음식도 다양하지 않았고 양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마크 트웨인과 함께 일했던 견습공들은 스스로의 기술로 먹을 것을 해결했다. 즉 스스로 발견한 비밀스러운 통로로 거의 매일 밤 치하쳐장실에 숨어들어가서 감자, 양파 등을 인쇄사로 가져왔다.

우리는 인쇄사에서 짚으로 만든 요를 바닥에 깔고 잠을 잤고 흠쳐 온 감자를 난로에 구워 먹으면서 재미있게 지냈다. 동료인 웨일스는 자기만의 훌륭한 감자 요리비법을 가지고 있었다. 웨일스식으로 요리된 감자를 그 후에 딱 한번 본 적이 있다.

1891년 말경 독일의 황제인 빌헬름 2세가 사적인 식사자리에 나를 초대했을 때였다. 웨일스 식으로 요리된 감자가 식탁위에 놓여있자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분별력을 잃고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용서받지 못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황제가 먼저 말하도록 기다리지 않고 내 편에서 먼저 황제에게 말을 걸면서

직업 - 소설가

출생 - 1835년 11월 30일 (미국)

사망 - 1910년 4월 21일

본명 - 사무엘 랭호른 클레먼스(Samuel Langhorne Clemens)

경력

1847. 열두 살에 인쇄사 견습공 생활

1850. 형이 경영하는 <한니발 저널>지의 식자공

1857. 미시시피 강의 수로 안내인

1865. 유머 단편 <캘리베라스 군의 명물 뿔뿔은 개구리> 발표

1876. <톰 소여의 모험> 발표

1882. <왕자와 거지> 발표

1884. <허클베리 핀의 모험> 발표

1894. 투자 실패와 경영하던 출판사의 도산으로 파산

1895. 세계 순회강연

식탁위의 감자에 대한 반가운 감정을 유쾌하고 시골벽적으로 쏟아 놓았던 것이다.

일화 2>당시에는 캠프벨 라이트라는 새로운 종파가 널리 퍼져 있었는데 유명한 종파 창시자가 켄터키에서 우리 마을로 온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흥분한 적이 있었다. 캠프벨은 특별히 준비해 두었던 연설을 했고 그 종파 사람들은 이 연설을 인쇄해서 간직하면서 되풀이해서 읽고 또 읽으며 외우고 싶어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인쇄자금을 모금하기 시작하여 총 16달러를 모았다. 아멘트 씨가 16쪽짜리 12절판의 팜플렛 형태로 500부를 인쇄하고 노란 종이로 표지를 만들기 계약할 정도로 당시에는 꽤 큰 금액이었다.

인쇄사로서도 큰 거래여서, 이 팜플렛 작업을 통해 서적 인쇄사로 자리를 잡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게다가 16달러라는 큰 액수가 인쇄사에 들어온 일은 처음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흔히 인쇄 비용을 돈으로 지불하는 대신 물건, 설탕, 커피, 히코리나무, 참나무, 순무, 호박, 양파, 수박 등으로 지불하고 있었다. 돈으로 지불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간혹 그런 사람이 있으면 혹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다.

우리는 쪽별로 나누어 훌륭한 책을 만들

TIP

소설 (통소여의 모험)

미시시피 강변의 조그만 마을 세인트피터스버그에 사는 톰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는 것보다 친구들과 강에서 헤엄치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꾸러기 소년이다. 항상 피를 부려 풀리 이모나 모범생 동생 시드, 혹은 친구들을 속이거나 골탕을 먹인다. 그러나 악의를 품지 않은 톰의 잔꾀와 장난은 줄곧 웃음을 유발하거나 어른들에게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풀리 이모의 담장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이 책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으로서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인간의 본성을 잘 보여 준다. 실컷 놀다가 밤늦게 귀가를 할 때면 이모의 눈을 피해 으레 창문을 통해 방으로 기어 들곤 하던 톰은 어느 날 이모에게 발각되어 휴일인 토요일에 30미터가 넘는 담장을 하얗게 칠해야 하는 벌을 받는다. 이때 톰은 한 가지 꾀를 내어 친구들로 하여금 톰에게 각자가 소유한 '재산'을 대가로 지불하고 톰을 대신하여 담장을 칠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해서 일도 끝나치고 연, 공기알, 유리 병마개, 낫쇠 문고리 등 재산도 엄청나게 불린다. 풀리 이모의 담장 사건 외에도 이 작품 속에는 결코 잊지 못할 장면들이 가득하다. 베키 새처를 향한 톰의 열렬한 사랑, 풀리 이모의 진통제 치료와 진통제를 고양이에게 먹인 톰의 장난, 사마귀 치료에 대한 톰과 허클베리의 대화, 잭슨 섬에서 펼쳐지는 톰과 허클베리와 조의 해적 놀이 등은 꿈과 낭만이 가득한 유년 시절,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었다. 8쪽을 조판하여 인쇄용 매뉴얼을 참조하면서 목요일에 인쇄를 했다. 그리고 나머지 8쪽을 정리해서 다시 조판하여 교정쇄를 찍었다.

교정쇄를 읽던 웨일스는 이내 대경실색을 했다. 실수를 찾았던 것이다. 행간을 띄지 않고 뻑뻑하게 인쇄된 줄에서 단어 두 개가 빠져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두세줄 안에는 글자를 당겨 넣을 만한 여백이 없었다. 세상에, 단어 두 개가 누락되었다고 모든 장을 다시 인쇄해야 하는가? 그때 웨일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빠진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 줄에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있었다. 웨일스는 이를 프랑스식으로 J.C.로 줄였다. 이렇게 해서 누락된 단어를 넣을 공간을 확보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경건한 문장에서 99% 경건한 단어를 빼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알렉산더 캠프벨이 즉각 인쇄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당신이 살아있는 한 절대로 다시는 구세주의 이름을 줄이지 마시오. 모두 적어 넣어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예전에 했던 작업을 고치는 동시에 위대한 설교자의 훈계를 넘어서기로 결정했다. 그는 J.C.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Jesus H. Christ로 늘려 넣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인쇄를 새로 해야 했다.

주식 사업 등은 잇달아 파산

그는 젊은 시절부터 돈벌이에 나섰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일확천금을 꿈꾸었다. 광산열풍에 휩쓸려 금맥을 뒤졌으나 노다지는 없었으며, 광산주식과 삼림지에도 투자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그는 20대 초반에 쓴 <통소여의 모험>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한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주식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아, 그는 빚까지 보태 광산주에 거액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투자한 광산의 주가가 폭락했다. 거기에도 영양보조제 사업, 자동식자기 사업도 잇달아 망했다. 그후 마크 트웨인은 친구에게 재산관리를 맡기고 자신은 죽을 때까지 주식 등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오로지 소설작과 강연에 힘썼다. 그래서 그 돈을 모아 빚을 모두 갚았으며 유산을 4560만 달러(요즘 돈으로 약 55억 달러)나 남길 수 있었다.

마크 트웨인의 넘치는 재치와 명언

마크 트웨인은 넘치는 재치와 명언들을 많이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화요일에 있었던 멋진 야구시합에서 본인이 응원에 열을 올리는 동안, 어린 소년이 본인 소유의 영국제 갈색 실크 우산을 가지고 떠나 다시 돌아오지 않았음. 파밍턴 가에 있는 본인의 집으로 그 우산을 멀쩡한 상태로 가져오면 5달러를 내겠음. 그 소년은 원치 않으나, 그의 유골에 대해서는 200달러를 내겠음”

“세상에는 3가지의 거짓말이 있는데, 평범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이다.”

“은행원이란 햇벌이 내리쬐릴 때는 우산을 빌려주었다가, 비가 내리는 순간 그것을 빼앗아가는 인간”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관심이 분산되므로, 한 바구니에 모두 담아 놓고는 그 바구니를 잘 지켜봐라”

“길에서 주운 1달러가 열심히 일해서 번 99달러보다 더 큰 만족감을 준다”

▼ 마크 트웨인 자서전과 대표적인 통소여의 모험

